

# 산책길에서 만난 위대한 영혼의 순례자

거장들의 산책길에서 탄생한 세계의 빛나는 작품들

산책은 바람과 만나는 일이다. 바람에 우리의 넋을 풀어놓는 일이다. 영혼은 바람의 세례를 받아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금지든. 역사상 산책길은 위대한 영혼의 탐험가들이 상상력과 사유를 가다듬는 곳이었다. 산책길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기도 하고 역사를 뒤바꿀 사상의 혁명을 꿈꾸기도 했다.

철학의 혁명을 이룬 임마누엘 칸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산책가였다. 80평생 동부 프리시아의 쾨니히스베르크라는 작은 지방도시에서 살았던 그는 엄격하게 매사를 계획했던 독신자였다. 한 전기작가의 증언에 따르면, 칸트가 회색 코트를 입고 등나무 지팡이를 들고 집 문 앞에 나타나, 지금도 '철학자의 길'로 불리는 보리수나무가 있는 작은 길로 향해 걸어가면, 이웃 사람들은 정확히 3시 30분임을 알았다.

칸트는 사철 내내 변함없이 매일 여덟번씩 이 길을 왕복했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듯이 먹구름이 끼었을 때는 늙은 하인 람페가 큰 우산을 옆에 끼고 마치 '조심'의 상징처럼 근심스럽게 뒤따랐다. 이 산책길에서 《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판》·《판단력비판》 등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가져온 명저가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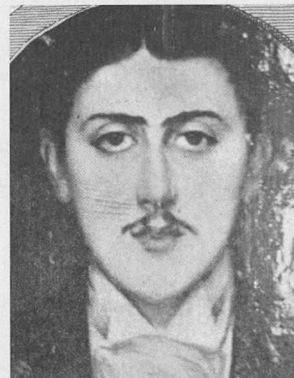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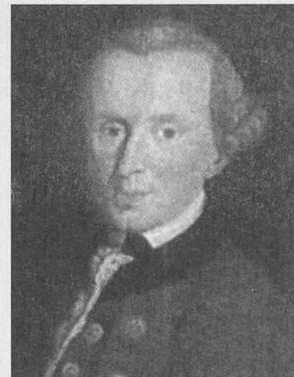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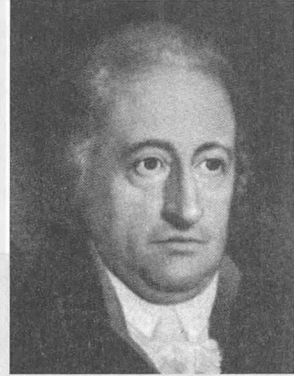
## 가장 위대한 산책가 칸트

인간 상상력의 보고인 고전 문학작품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변주돼 나타나는 산책길을 마주한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의 산책길은 사랑과 욕망 그리고 파멸에 이르는 단초가 됐다. 부활제로 떠들썩한 날 산책길에서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는다. "내가 순간을 향해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다!' 고 말한다면 그때 나는 기꺼이 멸망하리라!"는 조건이었다.

'마녀의 부엌'에서 다시 젊어지는 비약을 마신 파우스트는 다시 산책길에서 운명의 여인 마르가레테를 만난다. 그 청순가련한 아름다움에 포로가 돼버린 파우스트는 "그 붉은 입술이랑 빛나는 불을, 나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잊을 수 없다! 눈을 내리 칸 모습이 깊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고 고백한다. 결국 악마의 계약대로 파우스트는 마르가레테를 유혹해 임신케 하고 결국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를 죽게까지 하는 파멸의 길을 걷는다.

도시의 산책길은 때로 고독과 우울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의 수기》 첫 번째 장 (9월 11일 툴리에 거리)는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모여드는 것은 살기 위해서였던가. 나는 오히려 이곳에선 모든 것이 죽어간다고 생각될 뿐이다"로 시작된다. 귀족 출신의 무명작가인 말테 라우니츠 브레게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단지 '불안의 냄새'를 맡을 뿐이다.

"오늘은 아름답게 갠 가을다운 아침이었다. 나는 텔리리 공원을 산책했다. 동쪽의 태양을 등진 쪽은 모든 것이 눈부신 후광에 싸여 있었다. 빛을 받고 있는 쪽은 안개가 자욱히 서려 마치 밝은 젓빛 커튼을 둘러친



위부터 괴테·칸트·파우스트·조이스

것 같이 보였다.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뜰 안의 동상들은 잿빛 그늘 속에서 희뿌연 햇살을 받고 있었다.” 고독한 청년에게 아름다운 아침도 ‘잿빛 그늘’ 만이 두드러져 보일 뿐이다.

### 두 개의 세계 상징하는 산책길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두 개의 산책길은 이질적인 두 세계를 상징한다. 마르셀이라는 이름의 소년인 ‘나’에게는 전혀 서로 융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 두 개의 세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차, 융합돼가는 모습을 19세기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프랑스를 배경으로 묘사한다.

이 소설은 화자인 ‘나’가 소년시절을 보낸 콩브레 마을을 회상하는 데서 시작된다. 여기에는 스왕가 쪽과 게르망트가 쪽으로 뻗어 있는 두 개의 산책길이 있다. 하나는 교양 높은 유대인인 스왕가 쪽으로, 다른 하나는 왕가의 대귀족인 게르망트가 쪽으로 나 있는데, 이는 각각 부르주아사회와 귀족 사회를 상징한다. 어느 날 ‘나’는 메제글리츠 쪽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스왕가 딸로 후에 마르셀의 첫사랑의 대상이 되는 질베르트를 만나기도 한다.

‘현대 인간심리의 백과사전적 총화’로 손꼽히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는 고독한 사색가들의 내면 순례기다. 더블린시를 배경으로 인간의식의 축도를 보여주는 이 기념비적 작품은 더블린에 사는 중년의 유대인 광고업자 레오폴드 블룸의 1904년 6월 16일 하루를 《오디세이》의 틀에 맞춰 묘사한다. 신화의 영웅과는 달리 애처롭게 아내를 빼앗긴 사나이 블룸이 정신상의 아들을 찾아 헤매는 것과 그리스신화의 텔레마코스에 해당하는 스티븐 디덜러스가 정신상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리 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이 다층적인 내면의식 속에서 엇갈린다.

“버틀러 기념관 모퉁이에서부터 그(블룸)는 배첼러 산책로를 따라 죽 훑어보았다. 디덜러스의 따님이 아직도 저기 딜런의 경마장 바깥에 틀림없이 무슨 흰 가구를 팔아치우는 게지. 그녀의 아버지로 미루어 그녀의 눈을 이내 알 수 있었어. 배회하면서 그를 기다리는 것이다.” 거리를 떠돌면서 끊임없이 웅웅대는 의식의 흐름이 사람과 경관을 붙들어 하나의 텍스트로 써 해독한다. 우리는 주인공을 따라 인간 영혼의 거처를 산책하게 된다.

우리는 책이 마련한 산책로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경배하는 한 초월주의자와 지중해의 빛을 만날 수 있다. 미국 초월주의의 사상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은 자연 앞에 선 인간의 원형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소로우가 미국 콩코드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월든의 호숫가에 손수 오두막을 짓고 만 2년 2개월 동안 홀로 살며 기록한 생활 보고서다.

그가 숲으로 들어간 까닭은 무엇일까.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마주 대하고서 삶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었고, 또 죽게 됐을 때 내가 헛되이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문명의 속도에 비켜서서 그는 느릿느릿 숲과 호수를 거닌다. 숲 속의 나무와 풀 그리고 생명체에 대한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이웃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보고하기도 한다.

“날마다 혹은 하루걸러 하루쯤 나는 마을로 산책을 나가 세상 이야기를 듣는다...나는 새와 다람쥐를 보려고 숲에서 산책했던 것처럼 어른과 아이

들을 보기 위해 마을을 거닐었다.” “나는 때때로 소나무 우거진 작은 숲으로 산책을 나간다...어떤 때는 높으로 산책을 가기도 했다...높에는 패랭이꽃과 말채나무가 자라고, 감탕나무의 붉은 열매가 꼬마 도깨비의 눈망울처럼 빛난다.” 삶과 자연을 관조하는 영혼의 울림이 깊고 그윽하다.

### 지중해의 빛을 위한 헌사

장 그르니에의 《지중해의 영감》은 지중해의 빛으로 우리를 이끈다. 알제리, 산타 크루즈, 메디나 등 그 이름만으로도 이국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곳을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산책자의 모습이 에메랄드빛처럼 파랗게 출렁거리는 문체에 담겨 있다. 이 책의 〈서문〉에 담긴 글은 지중해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헌사로 기록될 만하다.

“지중해는 낭만주의자들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정신의 양식이나 신의 예감을 보았던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 속으로 위협스럽게 내몰지는 않는다. 지중해가 강요하는 선과 그 형태로 인해서 지중해는 진리를 행복과는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놓았다. 바로 빛의 취기가 명상의 정신을 더 끌어올리게 할 뿐이다. 이리하여 지중해는 절대적 승배와 행동의 승배를 같은 거리에 두고 있는 하나의 형이상학을 불러일으킨다.”

‘하나의 형이상학’으로 승화된 지중해를 산책하면서 그는 무엇을 꿈꾸었을까? 그는 시간의 힘을 보았다. “레탕의 산책길에서 나는 자주 뒤집혀진 조각배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위안을 얻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 조각배의 뱃머리에는 조개 하나가 박혀 있었다. 나는 작업의 무익한 시간을, 게으름의 생산적 시간을,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안됐고, 잊어야 했던 시간들을 생각했다. 행동하는 것과 아는 것, 만일 사람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행동하고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지중해의 성소 크레타 섬에서 ‘야생의 인간’ 조르바와 경건한 사색의 인간을 만날 수 있다. 위대한 야생의 사나이와 동양적 신비주의에 몰입하는 사색의 인간이 빚어내는 긴장과 활력의 드라마인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산책길은 신과 자연의 신비로운 환희를 호흡하는 길이다. 조르바가 벌목운반을 위한 케이블 고가선로 계약서에 서명을 받으러 수도원에 간 사이 ‘나’는 산책이나 하러 소나무숲으로 들어간다.

해가 높이 떠올라 이슬방울이 잎새 위에서 반짝거렸다. 조용하고 신비스러운 환희가 몸을 감싸면서 그는 흡사 천국에 온 듯한 감상에 젖는다. “내가 느끼는 신선하고 상큼하고 소박한 희열 자체가 하느님인 듯했다. 나는 생각했다. 하느님은 시시각각으로 그 모습을 바꾼다. 어떤 모습으로 변장하던 하느님의 모습을 알아보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한 잔의 신선한 물이 되는가 하면 무릎 위에서 노는 아이가 되고 아름다운 여자가 되는가 하면 아침 산보가 되기도 한다.”

위대한 영혼의 순례객들에게 그랬듯이 길은 우리를 유혹한다. 지상의 거처에서 안주하지 못하는 녀의 방랑기질 때문이다. 길은 앞으로 이어져 있지만 뒤로도 향해 있다. 앞길이 초극의 의지라던 뒷길은 반성과 회상의 의지로 이어진다. 우리가 걷게 될 산책길은 자신의 그림자를 뒤에 남기면서 이 세계와 자아의 본질을 읽어내려는 독해의 길이기도 하다.

— 박천홍 기자